



제2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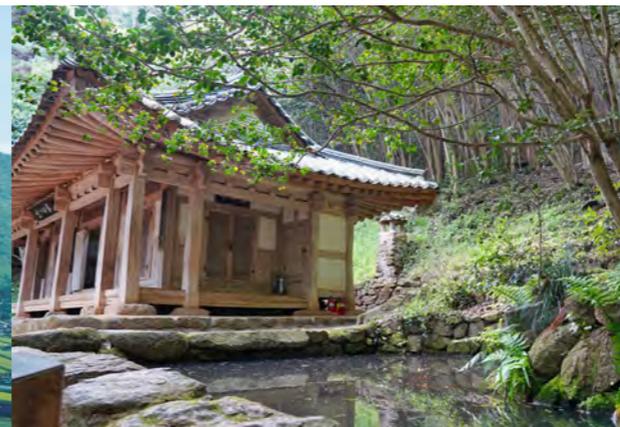
푸른 청자의 비색만큼 아름다운 강진 완도 해안 드라이브

허준성 | 여행작가

고려청자는 마치 옥을 닮은 뛰어난 비취색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섬세한 무늬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우리나라 청자 가마터의 50%가 강진군 주변에서 발견되었을 만큼 강진은 고려청자의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다. 청자의 비색을 닮은 강진 하늘을 따라 완도까지 달려보았다.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서 고금도와 신지도가 이어지며 강진과 완도는 완전한 이웃이 되었다.

여행작가
허준성은?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 저자 허준성은 10년째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4년차 이주민 / 국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자 잡지 기고와 단행본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 저서로는 『프렌즈 제주』(2023), 『대한민국 드라이브 가이드』(2022),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2022) 등이 있다.



조선 실학자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 초당 & 다산 박물관



다산 정약용은 4세 때 천자문을 배우고 열살이 되어서는 시집을 낼 만큼 총명했다. 정조 시절 수원 화성 축조, 거중기 설계 등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 정조 사후 천주교 사건에 휘말려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긴 유배 생활 중 절반 이상을 강진 다산 초당에서 보냈다. 유배 기간 제자를 가르치고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다산초당에는 당시 정약용 선생이 사용했던 다조(차를 끓이던 돌탁자)와 손수 돌을 날라 만든 연지석가산(연못)이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다. 초당 아래 다산박물관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출생부터 관직 생활을 거쳐 유배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산 친필로 쓰인 요조첩, 정조대왕 어필첩, 목민심서 필사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로 766-20(다산박물관 주차장)

[전화] 061-430-3911

[운영] 09:00~18:00, 월요일 휴무



걸어서 섬 한 바퀴, 가우도



강진만 한가운데 떠 있는 가우도는 반으로 갈라진 강진을 두 개의 출렁다리
로 연결해 주고 있다. 출렁다리를 통해 바다 위를 걸어 섬을 산책만 해도
가슴속이 뽕 뚫리는 기분이 든다.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아봐도 좋
고, 정상에 있는 청자타워 전망대도 가볼 만하다. 섬 둘레는 2.5km 정도로
40분이면 둘러볼 수 있을 작은 크기이지만, 곳곳에서 풍경이 발걸음을 붙
잡는 바람에 제법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편백나무와 곰솔이 빼곡히 뒤덮
힌 섬이라 숲 속과 바닷가 모두를 산책하는 기분을 누릴 수 있다. 섬의 정상
까지는 땀이 옷에 살짝 비치기도 전에 도착할 정도로 가깝지만, 더 편하게
오르려면 최근 생긴 모노레일을 타면 된다. 청자타워에는 강진 바다 위를
시원스레 타고 내려오는 쥘트랙도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31-27(저두출렁다리 주차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른 빛, 고려청자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로 손꼽히는 고려청자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청자였지만, 고려시대 만들어진 쪽빛의 청자는 중국에서조차 최고의 상
품으로 여겨졌을 정도였다.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200여 개의 요지가 있었던 강진은 고
려청자의 주요 생산지였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국모란절지문 주자와 운학문 매병 등 고려
를 빛내던 다양한 청자를 소장, 전시하고 있고, 청자의 생산, 소비, 유통 전반의 내용을 일
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청자박물관 옆 '한국민화뮤지엄'도 함께
둘러봐도 좋겠다. 과거 선조들의 꿈과 소망, 그리고 일상생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민화'를 모아놓았다. 조선시대 서민층에서 유행했던 민화는 정통 회화와 달리 실제 서민
들의 일상생활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우리 전통 민화를 계승
발전하고 연구하기 위해 5천여 점의 민화를 전시하고 있다.

[주소]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

[전화] 061-430-3755 [운영] 09:00~18:00, 월요일 휴무





십 리까지 퍼지는 모래 우는 소리, 신지명사십리 해변

명사십리해변은 '모래 우는 소리가 십 리까지 퍼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심이 완만하면서도 물이 맑아 남해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손꼽힌다. 2.4km에 이르는 긴 해변에는 밀가루같이 고른 모래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먼 거리를 운전해온 피곤함이 바다 내음 한 모금에 금세 사라진다. 간조 시간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어느 새 마을 사람들이 슬슬 모여들어 '모래고동'을 잡는다. 뜰채 같은 도구를 가지고 허리까지 잠기게 물에 들어가서는 슬슬 뒷걸음질 치며 바닥을 긁어 뜰채 가득 고동을 잡는다. 하루 해감해서 삶아 하나씩 빼먹기도 하고, 주민들은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다. 전문 장비가 아니더라도 바닷속 모래를 손으로 휘휘 저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 물놀이와 모래 놀이를 하다가 물이 좀 빠져나갔다 싶으면 모래고동 잡기까지 가능하니 1석 3조의 해수욕장이라 할 수 있겠다.

[주소]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796-3(공용주차장)



해상왕 장보고의 꿈, 청해진 유적지

780년대 태어난 장보고는 어린 시절을 완도에서 보내고 중국으로 넘어가 군사 1천 명을 지휘하는 소장이 되었다. 거기서 신라의 아이들이 해적들에게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을 보고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 청해진 대사로 임명된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서남해안 해적을 모두 소탕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전개하여 국내에 차와 청자 기술을 전래하여 무역 왕이라고도 불리었다. 완도군 장도는 청해진의 본영이 있던 곳이다. 1991년부터 10년간 발굴 및 복원되어 당시 청해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적지 입구에 있는 '장보고 기념관'을 먼저 들리면, 장보고와 청해진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809

